

현재 게임계에서 가장 '핫'한 기업 크래프톤이 KAIST에서도 '핫'한 소식을 만들어냈다. 크래프톤의 KAIST 전산학과 출신 전현직 임직원이 KAIST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110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한 것이다. KAIST 동문 여럿이 뜻을 모아 자신의 출신 학과를 위해 사재를 내놓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기부 구심점 역할을 한 크래프톤의 장병규, 신승우 두 동문을 만나봤다.

지난 6월 4일 KAIST 본원에서 열린 크래프톤 임직원의 기부금 약정식에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신승우 동문, 류석영 전산학부장, 장병규 동문, 이광형 총장, 이상엽 연구부총장, 이승섭 교학부총장.

Sangkyun Ki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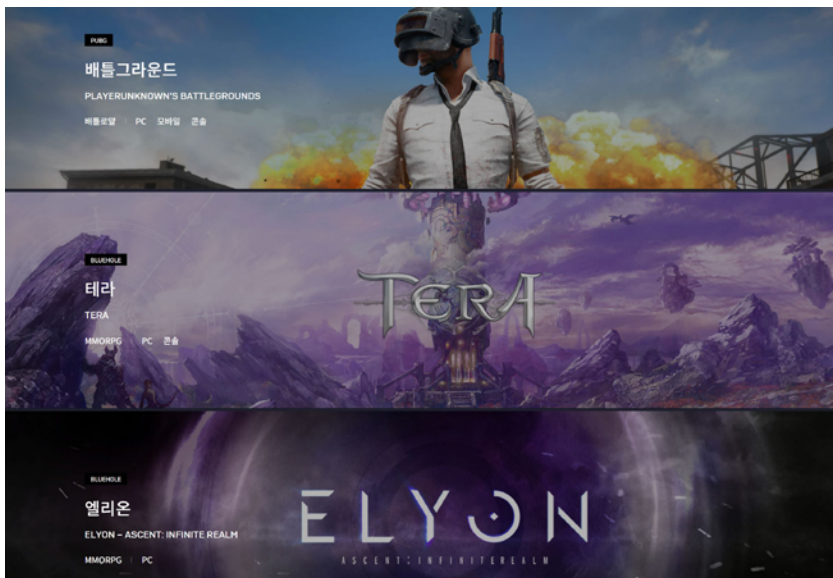
KAISTian이 세상에 보답하는 방법

“글로벌 IT 전문가 양성 위해 기부한 전산학과 동문”



▲ 장병규 동문은 오래 전부터 기부를 고민해 왔다고 한다. 장 동문은 2020년 1월 18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100억 원 기부 사실을 깜짝 발표한 바 있다.

▶ 장병규 동문이 이끄는 크래프톤의 대표 게임들. 크래프톤은 MMORPG 게임 ‘테라’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다 ‘PUBG’가 ‘대박’을 내면서 국내 최대 게임사 중 하나로 성장했다. PUBG는 신승우 동문의 지노게임즈가 크래프톤의 전신인 ‘블루홀’에 합류한 후 탄생했다. © Krafton



릴레이 기부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장병규 동문이다. 장병규 동문은 모교 KAIST에 100억 원의 사재를 KAIST 개교 50주년 기념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다. 백억 대 기부금은 KAIST 동문으로서의 처음이다. 장 의장의 기부 소식 동문들에게 큰 자극이 됐다. 장 의장이 크래프톤에 재직중인 동문들에게 기부 소식을 밝혔을 때 동문 대부분이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결국 총 11명의 동문이 55억원의 개인 기부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크래프톤이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개인 기부금과 동일한 금액의 후원금을 더해 총 110억 원을 모아 지난 6월 4일, KAIST에 전달했다. 장병규 동문과 신승우 동문은 모두 ‘때가 되어 기부했다’고 한다.

기부의 원동력, KAIST인의 ‘부채의식’ “개인적으로 기부 자체는 오래 전부터 고민해 오던 일입니다. KAIST 발전재단에 상임이사로 계셨던 김영걸 교수님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뜻을 굳혔죠. KAIST 개교 50주년을 맞아 동문이 큰 규모의 기부를 하면 뜻깊은 일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동문들에게 기부 의사를 밝혔는데, 그동안 기부할 방법을 고민하던 많은 동문들이 뜻을 같이 하겠다고 이번 기부에 동참한 동문들만 11명인데,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될 것 같아요.”

“저의 석사과정 지도교수님이 이광형 총장님입니다. 석사과정에 있을 때 과학자로서 학문적인 업적을 쌓는 것은 당연하고, KAIST 학생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보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던 차에 총장으로 선출되셔서 KAIST 발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보답’을 할 때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장병규 의장님의 기부에 동참했어요.”

사실 기부는 쉽지 않은 일이다. 평범한 직장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산이 넉넉한 사업가나 투자자라도 하더라도 역대 자산을 기부금으로 내놓기란 망설여진다. 특히나 장 의장처럼 한때 임직원의 급여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거처온 사업가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이라도 만약을 위해 보유할 필요를 느낄 법도 하다. 그런데도 KAIST 전산학과 동문들은 릴레이 기부에 선뜻 동참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신승우 동문은 KAIST 사람들의 ‘부채의식’에서 이유를 찾는다.

“저와 장병규 동문이 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 과학고를 졸업하고 KAIST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과학고나 KAIST나 모두 공공 재정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KAIST 졸업생들이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이 많은 편이에요.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 마련한 기회 덕분에 편안하게 공부에만 매진하고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었으니,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해서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여러 모로 시기가 잘 맞아떨어지기도 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창업이 수월한 IT 분야의 특성상 전산학과 출신으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동문들에게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이다. 동문들은 산업계에서 탄탄하게 자리잡았지만 정작 전문인력을 배출할 KAIST 전산학과 건물은 예전 그대로라 비좁았다. 그러던 차에 개교 50주년을 맞아 동문들의 기부 이야기가 나오자, 차제에 학과 건물 증축이라는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후배들에게 넉넉한 공간을 마련해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KAIST 출신으로서 지닌 책임감에 사회적인 성공, 전산학과와의 다소 열악한 상황이 겹쳐 ‘역대급’ 기부로 이어진 셈이다.

기부의 장벽 낮아져야 뜻이 있더라도 제대로 많은 기부 이끌어 낼 것이 있다. 기가 있어야 변화가 생긴다. 장병규 동문은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자신은 아니라고 말한다. 겸양이 아니다. 그는 KAIST 발전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직하신 김영걸 교수가 아니었다면 이처럼 큰 규모로 기부할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철 총장님 시절부터 김영걸 교수님께서 기부를 유치하려 많이 노력하셨어요. 저도 김영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부할 생각을 굳혔죠. 이번 기부 전에도 교수님을 통해 2억 원 정도의 규모로 KAIST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 김영걸 교수님께서 진행상황이나 지출내역을 꼼꼼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명받았어요. 기부금을 이처럼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얼마를 기부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죠.”

장병규 동문은 기부를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했다고 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자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유해야 인연이 꾸준히 이어져서 추가 기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관에서 기부자에게 보내주는 보고서를 일일이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적어도 기부금 운영 현황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기부자가 ‘내가 가치 있는 기부를 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다. 장병규 동문의 지적은 신승우 동문이 언급한 KAIST 출신의 부채의식과도 맞닿는다.

“정문술 빌딩이 제가 학교다닐 때 세워졌어요. 건물을 보면서 기부는 이렇게 크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압도됐지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KAIST 출신들이 부채의식이 있음에도 기부를 선뜻 못 하는 것 같아요. 기부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방송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도네이션’도 기부인데 말이죠.”

신승우 동문과 장병규 동문은 기부자에 신뢰를 주는 한편으로는 누구나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는 아무 대가 없는 지출이 아니다. 기부를 통해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고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을 덜어낼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의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장병규 동문의 생각이다.

“이번 기부를 진행하면서 KAIST 동문이라면 누구나



▲ 장병규 동문은 기부가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장 동문은 KAIST 전산학과와 함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직장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SW사관학교 정글’을 기획,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강연과 멘토링을 통해 IT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어떻게든 사회와 후배에게 보답하려 한다는 점이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동참한 분 중에도 기부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알기가 어려워서 망설이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분들에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쉽게 기부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KAIST의 전문인력이 더 많은 곳에서 활약하기를

사회와 후배에 대한 기여가 반드시 금전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 장병규, 신승우 두 동문은

IT 붐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커진 지금이야말로 KAIST 전산과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포함한 선배들이 현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은 생생한 경험이 새로운 학과 건물 이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광형 총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실패연구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저를 두고 4번의



▲ 장병규 동문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IT 산업을 비롯한 산업과 사회 전반의 대전환에 대해 민간 대표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사진은 2017년 12월 원주 KT 연구원에서 진행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장병규 동문. © 청와대

연속 창업에 성공했다며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패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실패는 성공 사례보다 이야깃거리가 안 되다 보니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러나 실패도 성공만큼이나 소중한다고 생각해요. 실패 경험이 발판이 됐기에 새로운 도전과 성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크래프톤으로 사명을 변경하기 전, 블루홀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과감하게 신승우 동문의 지노게임즈에 투자해서 PUBG의 성공을 함께 일궈낸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전산학과 동문들의 기부는 투자이기도 하다. 한국 IT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첨단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패러다임 전환이 빠른 게임업계라면 더 그렇다. “게임업계는 계속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기술적 기반을 지닌 사람들이 더 빠르게 적응하고 기회를 먼저 잡기 마련이죠. 현재 KAIST 전산학과 출신을 비롯해서 한국의 IT 인재들은 기술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여기에 기술을

잘 이해하는 경영자와 투자자가 결합된다면 매우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 의장은 전산학과 후배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이 개발자에 머무르지 말고 경영과 재무,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IT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전문성이 높아진 만큼, 기술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KAIST 전산학과 선배로서 유무형의 기부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여기에 있다.

“IT 산업이 글로벌화하면서 세계 수준의 인재도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KAIST 전산학과를 나온 인재라면 충분히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할 만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비하면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전문인력이 배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기술기반 산업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KAIST인들의 기부가 활발해져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더 넓은 분야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며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 장호종 교수 연구팀, '지능형 자동방역시스템' 개발

KAIST IT융합연구소 융합센터팀이 코로나 19 등 감염병 대비 지능형 능동 방역 시스템을 대전 문화예술회관의 전당에서 시연했다. 장호종 교수 연구팀의 '지능형 자동방역시스템'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여 감염병을 상시모니터링하고 긴급 방역,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더보기



+ 동물의 과식을 억제하는 원리 규명

KAIST 생명과학과 서성배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초파리에서 두 개의 독립적인 과식 억제 시스템을 최초로 발견했다. 동물들은 과식을 억제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성과는 과식 방지를 위한 새로운 억제 신경망을 발견한 쾌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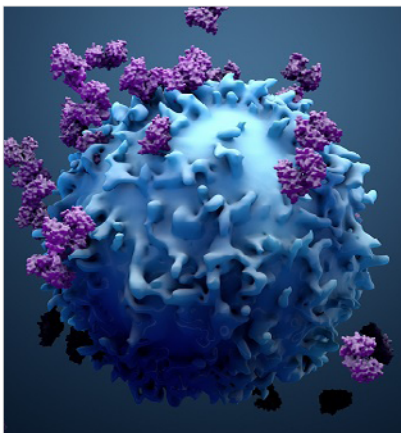
>> 더보기



+ 현장 진단형 초고속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술 개발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정기훈 교수 연구팀이 나노 플라즈모닉 구조를 통해 빠른 열 순환 및 실시간 정량 분석이 가능한 초고속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실시간 나노 플라즈모닉 PCR'은 소량의 검체로도 바이러스를 단시간 내에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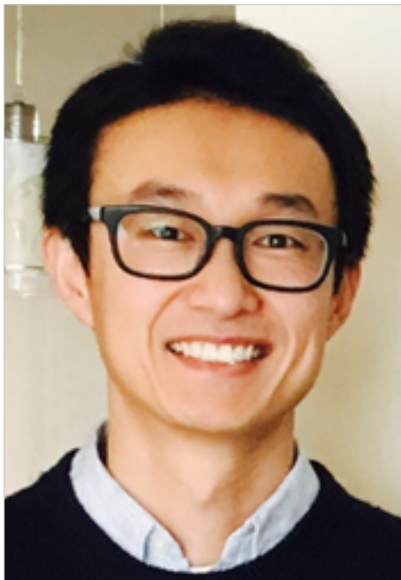
>> 더보기



+ 자연계 효소 원리를 이용한 신 개념 산업용 촉매 개발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최민기 교수 연구팀이 자연계 효소와 같이 원하는 반응물만 선택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고성능 산업 촉매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팔라듐을 포함한 고분자 촉매를 합성해 석유화학의 에틸렌 생산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아세틸렌 부분 수소화 반응에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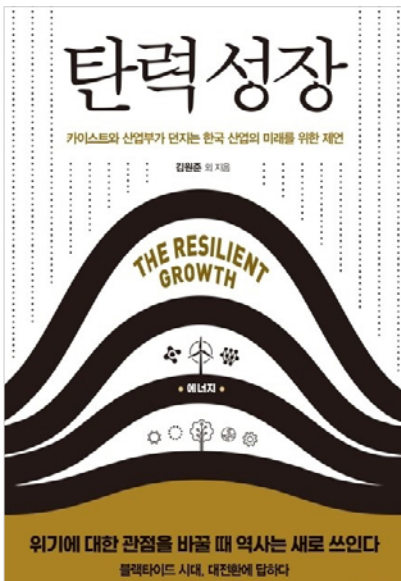
>> 더보기



+ 바이오및뇌공학과 이상완 교수, IBM 학술상 수상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이상완 교수가 뇌 기반 인공지능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IBM 학술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IBM 학술상은 미국 IBM과 전 세계 우수 대학과의 연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상으로, IBM 연구소장 등 조직 내 핵심 연구자들의 내부 지명을 받아 후보자를 선정하고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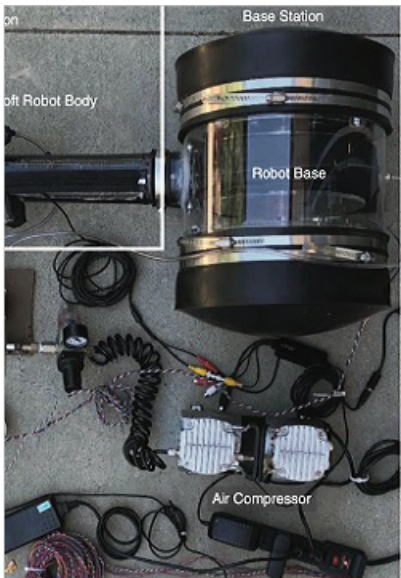
>> 더보기



+ 기술경영학부 김원준, 엄지용, 조항정 교수, 미래전략대학원 서용석 교수 '탄력성장' 책 출간

KAIST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전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언을 담은 책 『탄력성장』을 지난 2월 출간했다.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 지구온난화, 신냉전 등 역사상 유례없이 상시화·거대화·복합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위기를 '블랙타이드'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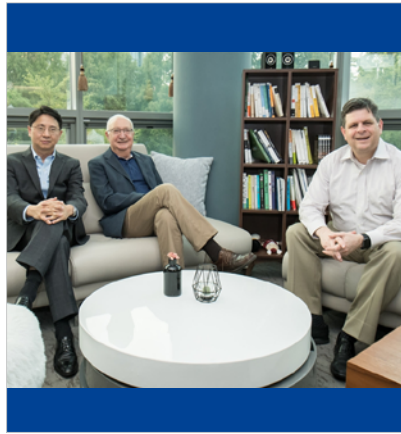
>> 더보기



+ 건설및환경공학과 유지환 교수팀, IEEE 로보틱스 자동화 저널 최우수 논문상 수상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 유지환 교수 연구팀이 로봇 분야 프리미어 저널인 IEEE 로보틱스 자동화 저널에서 2020년 최우수 논문상(Best Paper Award)에 선정됐다. 이 논문은 스탠포드 대학교와의 공동연구 결과로 발표된 것으로, 나무줄기처럼 자라는 소프트 그로잉 로봇의 설계, 원격조종, 그리고 재난 및 탐사 현장에서의 활용을 다뤘다.

>> 더보기



+ 혁신전략정책연구센터, 이공계 대학중점연구소 선정

김원준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이끄는 KAIST 혁신전략정책연구센터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1년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됐다.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는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를 돕기 위해 이공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를 대학의 연구 거점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더보기



+ 인공지능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공학과 미술의 만남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심현철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안정주/전소정 작가의 기계속의 유령이라는 작품에 협업해 'AI in EE(Electrical Engineering)' 모델로 공학과 미술이 합쳐진 공간구성을 제시했다. 본 작품은 2021년 5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전시관에 다원예술 2021 : 멀티버스관에 전시된다.

>> 더보기



+ KAIST,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로봇체육대회 창설 추진

'KAIST가 KT와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을 위해 'AI·SW 기술 연구소' 설립에 나선다. 5월 21일 KAIST 본원 제 2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KT는 KAIST와의 본격적인 협력을 통해 AI 원천기술과 산업기술을 아우르는 R&D를 고도화 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KT는 교수와 연구원, KT 직원 등 약 200명이 상주할 수 있는 R&D 공간 마련과 전용 GPU 서버팜 구축 등 연구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 더보기



+ KAIST-SM, 메타버스 연구 위해 MOU 체결

KAIST가 선도적인 메타버스 연구를 위해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았다. 양 기관은 6월 23일 대전 본원에서 메타버스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콘텐츠·인공지능·로봇 등의 분야에 관한 기술, 디지털 아바타 제작 관련 공동 프로젝트, 걸쳐 테크놀로지 관련 공동 학술 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 더보기